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마음에도 눈이 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저마다의 개성을 가진 눈이 있다. 그 다양한 눈의 형태는 마주하는 상대방을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짝대가 되곤 한다.

같은 사물을 눈에 담더라도 긍정적 인 마음의 자세나, 그렇지 않다면 따라 보이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혹자는 '눈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마음의 눈'이라 했다.

주말 오전, 반복되는 장소를 거닐던 나는 봄기 신선하다는 느낌이 들며 다카 사진을 냈다. 그리고 한 동안 있어버렸다.

봉화를 마치고, 우연히 만난 그날의 사진 시너 장에서 나는 새로운 '마음의 눈'이 되었다. 지금도 보자 회로를 통해 전달하는 그런 눈이 아니다.

마음의 눈은 깨끗한 공간의 하카 운네 서 있었다. 그러곤 방향을 찾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때, 어디선가 쉼의 마음으로 많은 빛이 눈을 가로막았다.

눈 맞으면 눈이 젖는다. 나의 작은 마음에도 '눈이 있다'는 소중한 시간



박여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이였다. 차근차근 내 생각을 달리하는 다양한 마음을 들여다본다. 속스러운 듯, 부끄러운 듯, 마음의 눈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다.

놀라운 사실이다. 내 마음에 이렇게 많은 눈이 있다는 것을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아야 할 곳이 마음에 감사한다.

마음에도 눈이 있다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감성의 눈이 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다

보아야 할 곳이 많다 이제 시작이다 시야를 프라이팬에 찌고리고 자세히 보자

가치런히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눈으로 나무와 작은 풀 가족에게

달려가는 시원한 바람과 악수를 하자

여기저기 보는 눈이 있다고 마음의 눈까지 피하려고는 하지 말자

이게 아니지, 싶으면 마음에 눈에 살그머니 관심 없는 듯 특하니,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건네보지 너가 참 부럽다 너는 참 좋겠다

박여범 '눈' 전문

우리의 눈을 돌 곳을 찾아보자. 가 능하면 상상시 자주 만나면 것이면 더욱 좋다. 그때, 눈은 것이 찢고 러진 프라이팬이다.

프라이팬을 바라보는 위치가 중요 하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각 인가, 아니면 눈과 평행한 위치에서 바라보는가, 아래부분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각인가에 따라 다양한 차 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럴 때면, 가치런히 마음의 질서 를 유지하면서 마음의 눈으로 나무 와 작은 풀 가족에게 달려가는 시원 한 바람에 악수를 향해보자.

그리고 속삭여보자. 여기저기 보는 눈이 있다고 마음의 눈까지 살자는 말자.

이게 아니지, 싶으면 다음에 눈에, 이게 아니지, 쪽, 쪽, 쪽, 신호를 보내 자. "네가 참 부럽다.", "너는 참 좋 겠다"라고..

사설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로관리 감독의 시각지대에 있다. 피해를 구제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알마를 받고 일하는지 확 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조차 받지 못하다보니 법에 호소해도 소용이 없다.

4년 동안 전남의 한 낚시도구 공장에서 일한 우즈베키스탄 국 적의 어느 노동자는 근로계약서 없이 꼬박 하루 11시간씩 일했 지만 임금을 다 받지 못했다. 심 지어 자신의 급여가 최저임금보 다도 수십만 원 적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았다.

덜 받은 급여에다 아직도 받지 못한 퇴직금까지 더하면 체불 임금은 2,800만 원이 넘는다. 근 무 시작할 때 사장이 최저시급 맞춰준다고 했으나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했다.

재활용 공장에서 다섯 달 동안 일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노동자 도 급여 1백만 원가량을 받지 못 했다. 노동청에 고소하고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업주와 연락 이 끊긴 상태다.

두 공장 모두 직원이 5명 미만

의 소규모 사업장이다. 농축산업 분야에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열 명 중 여덟 명은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 영세 사업장 일수록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경우가 많고, 야간·휴일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

정부가 대신 밀린 임금을 내주는 '소액채당금' 제도 역시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은 제외돼 있다. 이는 원래 영세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했 다.

그러나 제도를 악용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력을 착취 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 문제는 급여명세서가 있어야 자 신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는 발급조차 쉽 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 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는 5 명 미만 업체를 포함해 모든 사 업장은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내 줘야 한다. 노동권익센터를 중시 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급여명세서 양식을 제공하는 정도 가 전부다.

전북 국민의힘 입당하는 이유

최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2030 청년층의 입당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북도 2030세대의 지방 적 입당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다. 온라인 입당이 4월 22명을 시작으로, 5 월 63명, 6월은 14일 만에 116명 이나 들어왔다.

당직자들조차 험갈렸고 크게 당황했다. 하지만 대학가에서 만 난 청년들은, 공정의 가치를 알 세웠던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 을 드러냈다.

젠더 문제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부 여당의 소통 부재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았 다.

결국 이 같은 실망감과 불만 속에 일부 2030세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응원을 접고, 대항 마인 국민의힘으로 돌아서고 있 는 셈이다.

전북은 역대 대선에서 매번 두 지릿수 득표율이 폭포다. 호남 내에서 광주, 전남보다 보수정당 지지율이 조금 더 높기는 하다. 그래도 지역구 당선에 성공했던 정운천 의원 등의 노력이 있었

다. 이를 바탕으로 17대 대선 한나 라당 이명박 후보가 9.04%, 18대 대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13.22%를 얻었다. 그러나 탄핵 사태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 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3.34%로 급락했다.

세월호의 참상을 겪고 또 국정 농단의 속살이 날날이 들춰졌기 때문이다. 저북 도내에서 국민의 힘 청장년층의 입당은 아직은 절대적인 숫자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일은 전북에서 전 례가 없는 일이다. 불공정과 집 값 폭등 등으로 인해 2030청년 들의 불만과 좌절이 높아지고 있다. 보수정당에서 30대 당대표 까지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 대표가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할 만큼 '실상치 않 은' 청년 문제에 뒤늦게 관심을 쏟고 있다.

대선이 9개월도 남지 않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청년 세 대의 보수정당 입당에 더욱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상점 약탈 중 붙잡혀 매 맞는 남아공 청년들



14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상점을 약탈하던 청년들이 택시 연합 회원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고 있다. 지난주 제이콥 주마 전 남아공 대통령의 투 목으로 촉발된 폭동과 약탈이 며칠째 이어져 지금까지 72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망자 대다수가 약탈을 벌이던 중 무질서로 인해 압사했다고 밝혔다.

"잡초 제거, 맡겨 주세요"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제2회 '열소 달리기' 행사가 열려 열소 한 마리 가 리 버사이드 공원에서 잡초를 뜯어 먹고 있다. 열소들은 잡초 제거를 목적으로 공원에 투입돼 이른바 제조 직업을 수행한다. 열소는 매일 자기 몸무게의 1/4 가량의 풀을 먹 어치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